

불교발전 위한 연구성과 쏟아져

2014년 하반기 불교박사 16명... 불교 응용·실천분야에 주목

2014년 하반기, 불교 종합대학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선보였다. 총 16명의 박사들이 탄생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의 성과를 선보였다. 종합대학 별로 동국대 9명이었으며, 위덕대 2명, 동방대학원대 2명, 원광대 2명, 조선대 1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중 일부 논문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법사, 불교 실천행의 핵심 위치

지일 스님은 '법사상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사에서 법사상이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됐는지 고찰했다.

지일 스님은 논문에서 법사의 역할은 대자비심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회 실천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교화자였기에 단순히 설법만 하는 설법자가 아니라, 대승 불교의 중심인물이었음을 강조했다.

지일 스님은 초기부파불교에서는 설법 교화의 주체인 아라한이 대표적인 법사였으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바로 법사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사는 출가법사와 재가법사로 구분됐음을 설명했다.

업의 결과론·동기론적 해석에 학파 갈려

김영석 박사의 '불교 업론에 나타난 의지와 그 표출행위의 상관성 연구'는 업의 형성과 발생의 과정 중 의지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응, 경량부, 유가행과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정리했다.

김 박사는 실질적응부는 의지가 업이라는 단층구조로 해석한 반면, 경량부는 사업과 사이업과 같은 개념으로 좀 더 복합적인 구조로 업을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행과에서는 업의 내적 작용을 의지 발현과 결정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유부는 업의 결과론, 경부와 유가행과는 업의 동기론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업'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화된 불교의 학파 분열을 향후 철학적 담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교 영상미디어, 불교인간상 제시가 목적

최원섭 박사는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에서 불교계 영상미디어의 앞길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영화나 방송 등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불교적 코드'의 해법을 의상 스님의 일승법계도 활용에서 찾았는데 65편의 불교영화와 드라마를 정리해 완성한 인물형, 치유하는 인물형, 세상을 바꾸는 인물형의 세가지 불교적 인물형을 모델로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인물형을 모두 갖춘 이를 화엄경의 선재동자임을 들었다.

최 박사는 또 영상미디어는 21세기 대안으로 불교적 인물형을 구현해 현실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시창자 스스로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비구승단 정신 계승 절실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는 용성 스님의 불교 실천 운동의 사례를 예로 들고 새로운 불교실천운동을 제시



2014년 가을 학위수여식. 동국대를 비롯한 불교계 종합대학들은 8월 21~24일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불교관련 박사로는 동국대 9명, 위덕대 2명, 동방대학원대 2명, 원광대 2명, 조선대 1명이 박사를 받았다. 사진은 2014 동국대 학위 수여식

재가불자·법사의 적극 활동 강조

영상포교·새불교모델 제시

불교인물사·사상사 재검토도

특히 진관 스님은 근대불교 변혁 과정에서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의 공헌도에 비해 용성 스님 연구가 미약함을 들고, 이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진관 스님은 용성 스님은 자주 자립하에 산중불교로 상징되는 무교단 상황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활동했다며 용성 스님이 열원했던 비구승단의 틀은 오늘날 갖추어져 있으나 그 정신과 사상은 공허에 그치고 있다며 현 종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출·재가 중간법계 제정' 사찰경영 맡겨야

박소령 박사는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신행과 위상 연구'에서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불교사적으로

검토해 그 정체성을 알리는데 주목했다.

박 박사는 불교교단은 사상적 특성상 출가와 재가를 엄격히 구분해 각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어렵기에 미래 사회에서는 이 두 그룹의 중간 법계를 제정해 사찰 경영, 사회봉사 등 현실적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가자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본 다도문화, 한국불교와 시너지

전재현 박사는 '일본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을 통해 한국불교의 차문화 콘텐츠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 박사는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 차문화와 선사상을 바탕으로 일본식 전통문화로 정착했는데 형식과 격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됐음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ul.com

불교문화재 보존 위해 불자들 힘모은다

불교문화재연구원·대불청, 8월 19일 업무협약

불교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 불교계 문화재연구기관과 청년단체가 손을 잡았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8월 1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5093개 폐사지에 대한 조사 데이터와 교육프로그램을 대한불교청년회에 제공하며, 대한불교청년회는 폐사지에 대한 홍보와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이날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은 "성보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단"이라며 "불자 청년들이 우리 성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지나해부터 1페사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불교문화재 지킴이가 대불청 브랜드가 되도록



한 계획"이라며 "불교계 기관의 협력으로 성보 보존과 활용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이미 2013년에 이어 201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에 선정돼 '폐사지 지킴이365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폐사지 보존과 음악회 등을 통한 폐사지 홍보 등의 활동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연구재단, 종교연구 분야에 '불교' 포함

종교분야 전문위원 선정 과정 중 불교 분야를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분야를 포함시켰다.

한국연구재단은 8월 14일 불교학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종교분야에 불교학분야를 포함시켰음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30일 한국종교학회에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명의 책임전문위원과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불교학 분야를 제외해 불교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11개 불교 학술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의 불교분야 배제는 종교편향이며 이를 개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측은

"종교편향적인 고의성이 없었으며 학술연구분야 분류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교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불교학계 대표로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을 비롯해 김용표 전 한국불교학회장·김성철 한국불교학회 부회장·이덕진 한국선학회장 등 관계자들은 학술연구분류표에 종교학 분야가 현재 한국/동양 종교 분야 정원을 차지함에도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이 깊어 서양종교 분과로 포함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은 "학술연구분야 분류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고양 원각사 소장 불교고문헌 전면 조사

8월 27일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촬영 업무협약식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8월 27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원각사가 소장한 600여 점의 불교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시작이다.

원각사 소장 자료는 불교 전적 및 대라니류 410여 종, 사지(寺誌) 등 불교 고문서류 30여 종, 외서류 및 지도류 등 80여 종이 있다. 이외에도 불상, 탱화, 목판, 기와 등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380여 점 이상 소장

하고 있다. 원각사 소장본 중에는 <묘법연화경>(언해본, 1463년) 권1, 4와 <유가사지론> 권42(고려시대 재조본)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문경훈>, <달마대사관심론> 등 6건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교 전적 및 외서 등 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600여 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각사 소장 문헌은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로 촬영해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인터넷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서 서지와 이미지 자료가 공개된다.

한편, ABC사업은 한국불교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긴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집중

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은 2012년 담양 용흥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개의 사찰과 기관 등을 조사, 총 5천 6백여 점에 이르는 불교고문헌을 조사·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법화경요해> (2012년 조사, 2014년 보물 지정, 대구 용흥사 소장), <강화도군기수목>(2012년 조사, 1854년 필사본, 평창 지암정사 소장) 등 신자료를 발굴한 바 있다.

불교학술원 측은 "원각사 소장 불교 문헌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및 근대에 이



보물로 지정된 원각사 소장 <유가사지론>

르기까지 다양하며, 책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간기가 충실히 남아있는 선본(善本)들이 많다"며 "정밀조사와 촬영을 통해 향후 불교학 뿐만 아니라 서지학·역사학계에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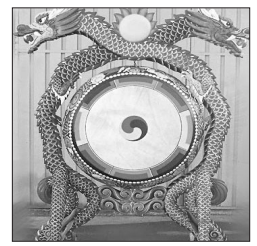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싹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모 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